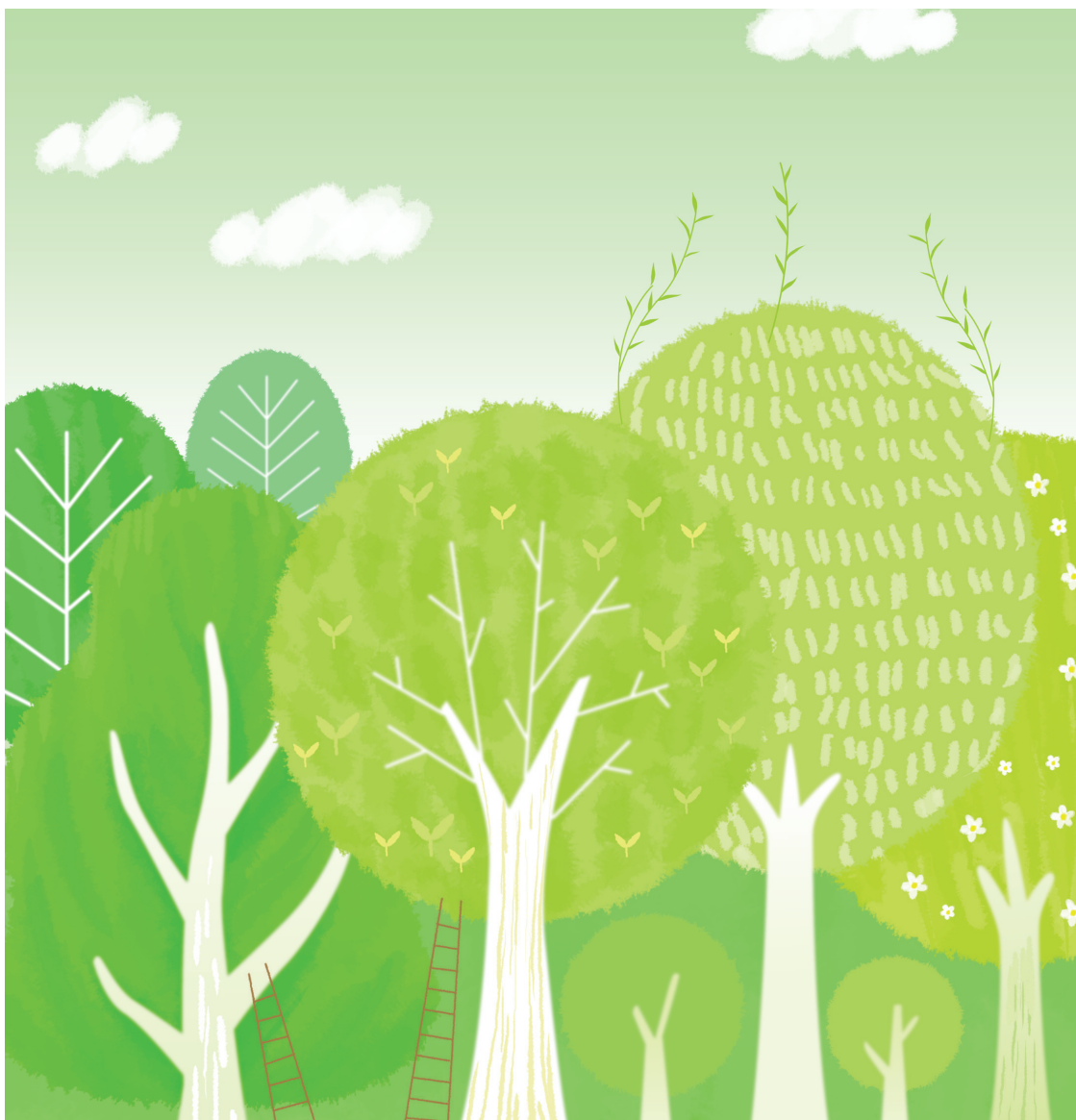


Youngeun News

동행

3월

2024년 451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은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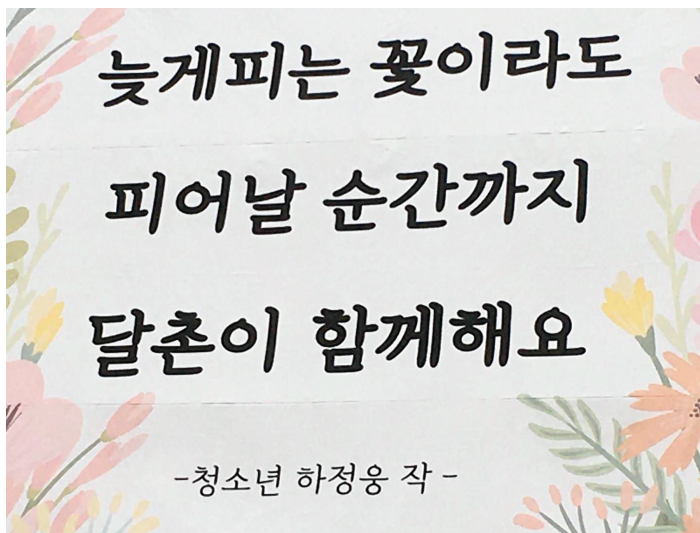
INNOVATE 영은, 혁신하다

“늦게 피는 꽃”

봄을 가리켜 꽃 피는 계절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꽃 피는 계절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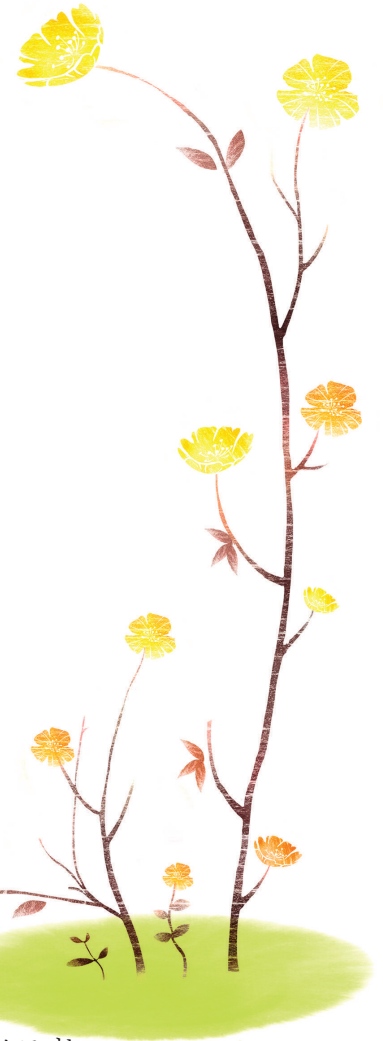
늦게 피는 꽃도 많습니다.
곧바로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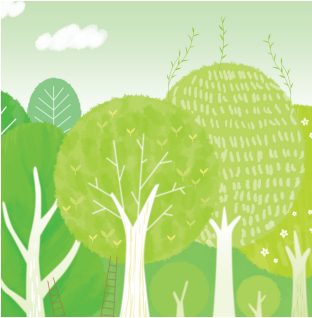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19:26) 

〈글 : 서현이 기자〉



영은교회 창립 주후 1960. 04. 24



월간 동행 영은 홍보부

1984년 4월 27일 창간

발행일 제451호 / 2024. 3. 3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61 영은교회

전화. 02-2676-7171~2

월간 동행 E-mail. yemagazine@naver.com

발행인 이승구 목사

지도목사 최광주 목사

편집인 김광일 장로

편집장 구자민 안수집사

서선이 권사

팀장 김창원 집사

편집 서선이 김경원B

기자 김명희C 서현이 이숙경

사진기자 허영준

디자인 샘

월간 동행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과
간증을 나누는 교회 소식지입니다.

2024년 「월간 동행」 사역자 모집

살롱!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생생한 글과 사진으로
남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월간 동행과 함께 동역하실
사역자를 기다립니다.

CONTENTS

- 02 **그림이 있는 풍경**
"늦게 피는 꽃" / 서현이 기자
- 04 **생명의 말씀**
Innovate, 경험 / 이승구 담임목사
- 07 **그리스도인의 향기**
기도는 대신이 없습니다 / 김윤경B 집사
- 08 **동행**
경건 모임, 자발적인 혁신의 움직임 / 이찬양 목사
- 10 **신앙의 유산**
영은교회 제2대 여성장로가 된 명정옥 은퇴장로 / 김명희 기자
- 12 **믿고 알고 믿고**
존 번연과 천로역정 / 최광주 목사
- 13 **웹진 동행**
2023년 모범 구역에 선정된 110구역 / 김미정C 집사
안수집사회 영성수련회 / 정영준 안수집사
"더누림, 혁신의 닳을 올리다" / 이민재(더누림 회장)
- 16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는 아이들입니다 / 채송화(임은유 임씨온 엄마)
하나님께 받은 사랑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 주서연 유아부 교사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 됐나요?" / 박형훈 유치부 교사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세요! / 김라엘 유년부 어린이
우리 교회 너무 좋아! 하나님이 최고! / 최우승 유년부 어린이
나는 선교사입니다 / 초등부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겠습니다 / 이지안 소년부 어린이
주님!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해주세요 / 강아람 소년부 어린이
행복한 수련회였습니다 / 박정우 중등부 학생
나를 한순간에 바꿔주신 하나님 / 최치호 중등부 학생
고등부 「고기파티」 동계수련회 / 이승혜 고등부 교사
한 마리의 잃은 양은 바로 나왔다 / 한윤호 고등부 학생
- 28 **전도폭발**
삶의 우선순위가 전도가 되었습니다 / 한마음교회 박미순 권사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됨을... / 훈련자 장진아 권사
- 30 **영은 소식**
이경배 안수집사를 찾아가다 / 이성창 안수집사
- 31 **선교지에서 온 편지**
인도하심 / 신국진 · 안윤정 선교사
- 34 **빠딱하게**
나는 막달라 마리아가 좋다 / 이숙경 기자
- 35 **녹색교회 : 녹색계명**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 장예은(팀초록 팀장)
- 36 **교회안내**
안수집사회 헌신예배 부부동반 특송

「월간 동행」에서는 성도님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영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거나 알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월간 동행 이메일(yemagazine@naver.com)로 사진과 함께
보내주세요.

편집회의 검토한 후 월간 동행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Innovate, 경험

(요한복음 13:36~38)



글 | 이승구 담임목사

■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로 살아가던 어느 날,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 무리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지금까지 익숙한 장소에서 살아오며 쌓아온 ‘선경험의 틀’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의 베드로가 축적해 온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지금껏 고수해 온 자신의 틀을 무너뜨립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니, 그동안 굳게 지켜 온 ‘선경험의 틀’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눅 5:10)”고 하십니다. 베드로를 새로운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새로운 차원의 성장을 예고하십니다. 말씀을 들은 그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릅니다.(눅5:11) 새로운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별을 예고하십니다. 베드로는 의아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조금은 감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그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요13:37)”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시며, 도리어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것이라 예언합니다. 닭이 울기까지는 기껏해야 몇 시간밖에 남지 않은 때였습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베드로가 얼마 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다니 아마 베드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는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의해 체포되어 간 예수님의 재판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재판 장면을 바깥뜰에서 지켜봅니다. 이 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외칩니다. 여종의 추궁에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마26:70)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서 당당하

고 용감했던 수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작은 공격에도 속절없이 ‘실패자의 자리’로 추락합니다.

여종의 추궁을 듣고 두려움을 느낀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을 출입하는 ‘앞문까지’ 이동합니다. 이때 또다른 목격자가 등장합니다. 다른 여종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정체를 밝힙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낀 베드로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마26:72)**”하며 강하게 부인합니다. ‘맹세’는 자기 저주의 요소를 첨가하는 말로, 맹세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자신이 저주를 받아 죽으리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충동적으로 얼버무리는 데 그치지 않고, 더욱 강력하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고 합니다. ‘도당’이라는 말은 그들 중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진실로’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베드로의 정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집중되는 사람들의 말을 강하게 거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후 지난 3년 동안 굳게 지녔던 확신을 저버리는 처절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 베드로의 경험을 넘어

하지만 베드로의 인생은 실패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의 경험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펼쳐나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마26:75)”

베드로에게 통곡은 어떤 의미입니까?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을 통탄히 여기며 눈물 흘리는 자리입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한없이 나약한 자신을 책망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리입니다. 다 예수님을 떠나도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쳤던 자신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순간을 곱씹으며 눈물을 흘리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확인하며,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눈물의 자리입니다. 이 눈물이 베드로가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다시 설 수 있었던 데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깨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22:31~32)”

사탄은 끊임없이 베드로를 흔들어 그의 믿음이 떨어지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한순간 믿음이 떨어지더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시켜주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갔었고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 것도 잡지 못한 채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실망감에 사로잡힌

자들이 지친 몸으로 앉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과 생선으로 조반을 함께 나눠 먹습니다. 조반을 마치신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요21:15)”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당신을 사랑하는지 세 번씩이나 물어보십니다. 반복된 문답을 통해 베드로에게 의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세 번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 과정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과거의 사건을 뼈저리게 생각나게 합니다. 동시에 세 번의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와 화해의 손을 베드로에게 먼저 내미시며, 베드로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랑의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그 사랑의 고백에 힘이 있습니다. 더 이상 그는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실망하고 좌절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존재도 아닙니다. 과거에 지은 죄에 치여 벗어나지 못하고 온갖 회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도 아닙니다. 사랑의 고백이 회복되는 순간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 Innovate

데이빗 A. 씨멘츠의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가치와 귀중함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께로

부터 계속 공급받도록 하고 당신의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거짓된 영상에 의존하지 말라.

여기서 ‘거짓된 영상’은 과거의 실패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 거짓된 영상을 계속해서 떠올리도록 요구합니다. 거짓된 영상 즉 ‘실패한 경험’에 얽매이게 합니다. 실패했고, 상처 받았고, 주저앉았던 경험의 영상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속삭임을 단호히 거부하고, 거짓된 영상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내야 합니다. 사탄이 베드로에게 ‘거짓된 영상’을 보여주며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도록 믿음을 포기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짓된 영상’을 계속 보여주며, ‘과거의 실패한 경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혼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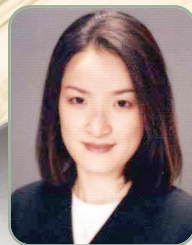
그러한 때에 베드로를 위해,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계산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기도의 힘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말씀의 능력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주로 긍정적 경험만을 좋아하고, 부정적 경험은 기억하기조차 싫어합니다. 하지만 긍정적 경험이든 부정적 경험이든 과거의 경험을 꺼안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흔적인 경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데 그 경험들을 사용하시도록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고 절망케 한 경험이지만, 그 경험까지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Innovate’입니다. 

기도는 대신이 없습니다



글 | 김윤경B 집사

저희 어머니(주영옥 명예권사)께서는 오래 전부터 영은교회에 다니셨습니다. 저도 영은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영은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주일이면 어머니의 권유로 교회에 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었으나 제게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열심은 없었습니다. 그런 제게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생활에 성장이 필요하다”고 충고를 하였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시며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계셨기에 지금도 제가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장하여 대학생살을 하면서 친구를 통해 전해들은 제자훈련과정과 성경공부를 통해서 청년부 활동도 열심히 임하게 되어서 신앙에 한걸음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교회에 다니나 신앙에 대한 열심도 기대도 없었던 제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작은 움직임이 있었고 그로 인해 주님과 교류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는 어머니가 대신 해주시는 것이라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제가 믿음은 없으나 주일이면 항상 교회의 한 자리에 앉아 주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만남을 기도하게 된 것은 저를 위해 지금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어머니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 후 지금까지 줄곧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변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제가 느끼고 깨달은 작은 은혜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제게 그렇게 했던 저의 소중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주님 말씀이 위로가 될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주님께 선택된 자임.

지금껏 직장 생활을 하며 모든 일들이 제 능력으로 한 것이었다고 생각 했었으나 그 또한 주님의 은혜였음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제 능력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감사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제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삶,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에 목적을 두었으나, 그 또한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능력은 없지만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저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편(권영운 집사)와 고3 아들(권현민)과 함께 주님께서 더욱 굳건하게 세우시는 가정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는 어머니께서 대신 해주시는 기도가 아니라 제 입술을 열어 마음을 다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만남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기쁨을 느끼고 싶습니다. 



글 | 이찬양 목사

경건 모임, 자발적인 혁신의 움직임

오래전부터 한국교회는 양질의 소모임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제자훈련, 셀모임, 목장모임, 가정예배 등의 용어들만 보더라도 한국교회는 이전부터 소모임에 대한 목회적, 신학적 시도들을 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지형은 박사는 한국교회의 제자훈련 또는 소그룹 운동의 교회사적 근거를 필립 야콥 슈페너의 ‘경건 모임’에서 찾으며, 슈페너의 경건 모임과 한국교회의 소그룹 운동의 연속성을 조명하였다.

■ 경건 모임의 시작

한국교회 소그룹 운동의 원형이 되는 슈페너의 경건 모임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1670년 8월 슈페너는 자신의 목사관에서 몇 명의 성도들과 함께 공적 예배 이외의 신앙 모임인 경건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슈페너가 설교 등을 통해 경건 모임의 설립 가능성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경건 모임을 조직하거나 운영하려고 하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오히려 목회자인 슈페너가 경건한 열망에 사로잡힌 성도들의 요구를 이기지 못해 자신의 목사관에서 경건 모임을 열게 되었다. 당시 제도권 루터교회 안에서는 공적 예배 이외의 별도의 신앙적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없었고, 이러한 모임의 적절성에 대한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슈페너 나름대로는 목회적 모험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모임 초반의 구성원은 대부분 귀족과 학자들이었다. 처음에는 이 모임에 여인들, 비루티교인, 하류층, 상인, 하인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초기 경건 모임은 요한 야콥 쉬츠를 비롯한 학자그룹이 주를 이루었다. 초기 경건 모임에서는 사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슈페너를 찾아온 프랑크푸르트 시민들은 세속적인 모임과 반대되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대화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원했다. 그들은 불쾌한 세속적인 모임과 구분되는 모임을 만들 것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경건 모임은 처음에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지 않았다. 자발적으로 모임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경건 모임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허가과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이렇게 시작된 초기 경건 모임의 구성원들은 자발적 참여를 통해 ‘거룩한 우정’을 지향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다소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던 이 경건 모임은 곧 ‘분리주의자들’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슈페너는 이 오명을 벗기 위해 경건 모임을 공개적인 모임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 다른 계층의 교인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이 모임은 빠르게 성장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모임에는 귀족과 학자들뿐만 아니라 상인들과 하인들, 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5년 뒤에 참가자 수는 50명이 되었고, 1680년대 초에는 참가자 수가 100명을 훨씬 넘게 되었다.

슈페너의 경건 모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평신도들의 주도로 소그룹이 형성되고 조직되었다는 점에 있다. 슈페너는 성도들이 경건한 열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설교를 통해 영적으로 도전했으며, 성도들은 그 도전에 믿음으로 응답했다. 경건한 열망을 품게 된 성도들은 슈페너에게 공적 예배 이외의 영적인 모임을 요구했고, 목회자인 슈페너는 동료들과 당국의 우려와 여러 가지 위협을 감수하고 이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하였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영적인 상호작용이 실패하지 않는 소그룹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었다는 사실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 경건 모임의 내용

경건 모임은 일주일에 두 번 진행되었다. 소수의 사람이 주일과 수요일에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바르뮈서교회(1833년 바울교회로 개명)에서 예배가 끝난 뒤 교회 옆에 있는 목사관으로 이동해 모임을 가졌다. 슈페너는 이 교회에서 1666~1686년까지 목회를 하며 경건 모임을 진행했다. 초기 경건 모임은 다음과 같은 순서들로 구성되었다.

첫째, 기도시간이다. 경건 모임의 시작과 끝에는 기도시간이 있었다. 슈페너는 기도로 모임을 시작했고, 기도로 모임을 마쳤다. 둘째, 경건 서적을 읽는 시간이다. 기도로 모임을 시작한 후에 모임에 참여한 이들은 경건 서적을 몇 페이지 낭독하고, 그것들을 요약하였다. 그 후에는 경건 서적을 읽으며 중요한 부분이나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들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기 모임에서 읽었던 경건 서적들의

예로 베일리의 『경건의 실천』, 뤼트케만의 『거룩한 자비를 미리 맛보기』, 휴니우스의 『신앙의 개요』를 들 수 있다. 셋째, 토론시간이다. 이들은 경건 서적을 읽은 뒤에 모임을 바로 마치지 않고, 그 내용을 가



바르뮈서교회(현, 바울교회)

지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건 모임 가운데에는 자유로운 대화가 있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질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화는 전적으로 경건, 하나님의 사랑,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순종과 관련한 것이어야 했다. 공동체는 지속적으로 경건 모임을 유지하기 위한 일정한 규칙을 가졌고, 이 규칙을 위반하는 자들은 징계를 받기도 하였다.

슈페너의 경건 모임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적 경험을 제공하는 대안적인 소모임이었다.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가 아닌, 경건의 훈련과 신앙의 성숙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전개된 모임이었다. 친분이 아닌, 공동의 영적인 목표와 모임의 대안적 측면이 경건 모임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동행

영은교회 제2대 여성장로가 된 명정옥 은퇴장로



명정옥 은퇴장로

영은교회는 63년 동안 2명의 여성 장로를 배출했다. 송리복 장로(2000~2001년)와 명정옥 장로(2015~2019년)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은 1994년 총회에서 여성안수를 결의하여 여성이 장로와 목사가 될 수 있게 됐다. 예장통합 교단은 감리교(1955년)와 기장(1977년)에 이어 세 번째로 여성에게 안수를 주고 있다. 우리 교회의 제2대 여성 장로인 명정옥 장로(현재, 은퇴장로)가 갖는 의미가 크다. 더욱이 명 장로는 남편 故 문규칠 장로(2007~2009년)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 '부부장로' 이기도 하다. 지금은 고인이 된 김창경 장로와 송리복 장로가 제1대 부부장로다.

■ 기독교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

명정옥 장로(75세)는 평남 강동군이 고향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1949년 1월 17일(음)에 10남매 중 8번째로 태어났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남하해 평택에서 살게 됐다. 군대에 징집된 첫째 오빠는 함께 피난 나오지 못했고, 평택에서 부모님과 9명의 형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 명 장로 가족이 사는 평택은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많았다. 주일이면 장로님 집 마당 닭장에서 피난민들이 모여 예배했다. 부모님은 이북에서부터 교회 집사로 신앙생활을 해왔으며, 작은아버지가 목사였기에 가능했다. 명 장로님 아버지는 제일장로교회(예장합동)를 개척하셨다. 피난민이 모여 드리는 가정예배가 제일장로교회가 된 것이다. 명 장로님

이 결혼한 후 부모님은 미국에 이민 가게 됐고, 부친은 그곳에서 91살에 주님의 품에 안기셨다.

장로님은 중3 때까지 평택에 살다가 부모님과 충남 모산으로 이사했다. 그곳에서는 택민교회에 다녔고, 이 교회에서 문규칠 장로를 만나 결혼하게 됐다. 교회 교인이었던 문 장로의 누나가 중매를 해서 결혼을 하였다. 장로님은 신혼살림을 구로동에 꾸렸다. 당시 남편 문규칠 장로는 진화전기에 알바생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회사직원이 감전으로 사망하면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을 검토하던 중, 문 장로가 회사를 인수하게 됐다. 진화전기는 문 장로가 세상을 떠난 후 현재 차남 문충모 집사가 경영을 맡고 있다.

■ 영은교회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다



명정옥 장로 임직식

명정옥 장로가 영은교회에 오게 된 것은 장남 원모가 초등학교 1학년(1983년) 때 구로동에서 당산동 평화아파트(현재 예가)로 이사 오면서다. 근처 교회를

찾던 중 영은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이용남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아 그날로 교회에 등록하게 됐다. 온 가족이 영은교회 교인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봉사에도 힘썼다.

명 장로는 2003년에 권사가 되었고, 2015년에는 장로안수를 받았다. 명 장로는 항존직분자로서 70살 은퇴할 때까지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헌신했다. 교회 식당 봉사와 새가족교육에 힘을 쏟았고, 샤론찬양대에서는 70살까지 대원으로 활동했다. 장로 직분자로서는 “특별히 교회발전을 위해 한 일이 없습니다”라며 겸손히 말씀하지만,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했던 장로님이다. 지금도 교회 중보기도팀에서 교회와 교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 ‘50년생 기도모임’에도 속해 있다. 명 장로님의 바램이 있다면 영은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보기도팀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

요즘 장로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침체된 한나반을 일으키는 것이다. 올해까지는 마리아반(70~75세)에 있는데, 내년에 한나반(76세 이후)에 가면 ‘그 옛날’ 한나반의 모습으로 재생시키는 게 목표다. 특히 여전도회 발전에도 관심이 많다. 여전도회가 젊은 기수일수록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전도회 모든 기수가 발전되었으면 한다. 영은교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어 모든 이를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 부모가 다 장로!

지금 명 장로님은 큰아들 문원모 집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남편 문규칠 장로가 간암으로 2009년 12월 2일에 하나님 곁으로 떠난 후 원모, 난모, 충모 세 자녀가 명 장로님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딸 난모는 미국 산호세에 이민 가 한인교회에 나가고 있으며, 차남



문규칠 장로 임직식 후 가족과 함께

충모는 여의도에 살면서 선한목자교회에 다닌다. 장남 원모는 영은교회 안수집사로서 회계부에서 봉사하고 있다.

문원모 집사는 ‘부모님이 다 장로’라는 게 기쁘지만은 않다고 한다. 자신이 부모님이 물려준 신앙의 유산을 잘 잇지 못하는 것 같아서 늘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두 분이 장로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늘 위트가 많아서 사람들과 즐겁게 지냈던 부친은 장로로서 교회 시스템에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녹여 내려 애썼다. 장로가 된 모친은 교회행정에는 밝지 못했지만, 대신에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다.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늘 강조했던 어머니 장로님. 문 집사는 두 분의 신앙뿐 아니라, 모든 것을 본받고 싶어한다. 오늘도 연로하신 어머니에게 말씀드린다. “집에서 성경만 읽지 말고, 외부활동도 많이 하세요!” 

〈인터뷰 글 | 김명희 기자〉

존 번연과 천로역정



글 | 최광주 목사

존 번연(John Bunyan, 1628~1688)은 영국의 기독교 작가이자 설교자로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작품인 기독교 고전 <천로역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비국교도 설교자라는 이유로 12년 동안 투옥하게 되었는데 그때 쓴 책이 <천로역정>입니다. 1678년에 출판된 이 책은 크리스천이라는 인물이 멸망의 도시에서 천성의 도시로 가는 여정을 우화로 표현하였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유혹과 시험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영적 체험의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로역정은 첫 번째, 천로역정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크리스천은 꿈속에서 책 한권을 읽다가 몸을 떨며 흐느껴 울면서 자신이 멸망 받을 수 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읽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 마다 두루마리 책인 성경을 통해서 완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서적을 읽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존 번연도 12년 동안 감옥에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었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발을 인도하는 등불이요,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길이 좁은 길이라는 진리를 알려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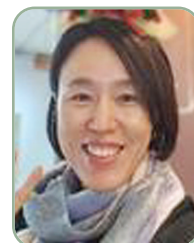
천성을 향한 좁은 문 앞에서 크리스천이 선의와 대화를 나눕니다. “저 앞을 보세요. 좁은 길이 이어지는

게 보입니까? 저게 댁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믿음의 선조들과 예언자들,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닦아놓은 길입니다. 어때요. 마치 자를 대고 그은 것처럼 반듯하죠? 반드시 저 길로 가야 합니다.” 크리스천이 머뭇거리며 말합니다. “갈림길이나 굽은 길이 나타나면 처음 지나가는 사람들은 길을 잃기 십상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셋길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하나같이 굽고 널찍합니다. 그게 바로 바른길과 그릇된 길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바른길은 늘 곧고 좁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느 길이 바른 길일까요? 곧고 좁은 길이 바른 신앙의 길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에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전도자, 도움, 해석자, 경건, 자비 등의 안내와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실의 순교와 소망과의 동행으로 결국 천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한 순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과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좋은 기독교 고전인 <천로역정>을 읽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순례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영적 각성과 혁신이 일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모범 구역에 선정된 110구역 - “동네 카페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구역예배 드려요” -

110구역은 2023년 모범 구역에 선정됐다. 구역장 김미정C 집사가 2월 23일
금요일 권찰교육 시간에 발표한 소감글 일부를 성도들과 공유한다.

글 | 김미정C 집사(110-2구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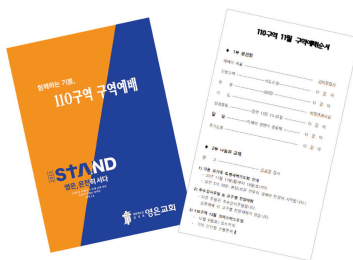
햇병아리 구역장인 부족한 저를 이렇게 영광스러
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10구
역은 인원이 많아서 반장, 110-1 구역장, 110-2 구
역장, 권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성훈 목사
님의 권유로 구역이 활성화되어 구역원들과 교제하
면 좋겠다는 생각에 110-2구역 구역장을 흔쾌히 맡
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대와는 다르게 코로나의
장기화로 몇 년 동안 전화로만 근근이 구역원들의 안
부를 묻는 정도의 교제만 가능했습니다.

후 구역에 온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
니다. 권찰들과 구역예배 날짜와 장소, 앞으로의 구
역예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처음 예배는 교회에서 드렸지만, 이후 동네 근처 카
페로 장소를 옮겨 한 달에 한 번씩 구역예배를 드리
게 되었습니다. 구역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구역예배
순서지도 만들었습니다. 구역예배는 점차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직접 재배한 상추도 나눠 먹고
각자 먹을 것도 챙겨오고 점점 더 풍성한 교제가 이
어지게 되었습니다.

110구역



구역예배 순서지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구역의
모습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
니다. 비슷한 동년배들끼리도 서로
다른 해결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
던 이야기를 듣고, 서로 배워가는
삶에 지혜를 얻는 시간이기도 했습
니다. 저희에게는 이런 교제들이 건

그러던 중 권찰예배 때 “올백심방” 소식을 듣고
“올 것이 왔구나! 바로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
니다. 구역원들에게 의견을 물을 새도 없이 바로 신
청했습니다. 박정연 반장, 김묘정 구역장, 이예한 권
찰과 협의 후 110구역 올백구역예배를 준비하게 되
었고, 많은 구역원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

강하고 깊이 있는 믿음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2024년 110구역의 구역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작년
에 ‘올백심방’을 만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올해도 주님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리라 믿습니다.

※ 더 많은 교회소식을 교회 홈페이지의 웹진 동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수집사회 영성수련회



글 | 정영준 안수집사



안수집사회 영성수련회 특송 : “새롭게 하네”

안수집사회 회장 이도수 안수집사의 인도로 안수집사회 영성수련회가 지난 2월 16일(금), 17일(토) 양일간에 걸쳐 본당에서 진행됐다. 첫째 날에는 금요심야기도회 시간을 통해 영성수련회가 진행되었으며,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한 박대원 지도 목사님의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라는 제하의 말씀을 들으며 온 성도님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말씀 선포에 앞서 “새롭게 하네” 특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둘째 날에는 간담회 및 이승구 담임목사님의 강의가 있었다. 간담회에서는 안수집사회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수집사로서 봉사와 섬김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은퇴자 예우에 대한 토

론도 했다. 이어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셀프리더십’이라는 이승구 목사님의 명강의가 있었다. 목사님은 ‘광야’, 한적한 곳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장소로 우리의 삶에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명에 대한 점검, 열정에 대한 점검, 인격에 대한 점검을 통해야만 지속적인

섬김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셀프리더십’ 이야말로 안수집사에게 꼭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역설했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함께 하였는데, 영성수련회에 참석한 안수집사들과 불고기에서 된장찌개로 이어지는 맛있는 점심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커피 한잔을 나누며, 담소의 시간을 가진 후 해산하고 다음 영성수련회를 기약했다. 이번 영성수련회는 안수집사회의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매 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열정을 불어넣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더누림, 혁신의 닳을 올리다”

— 더누림 동계수련회 —



글 | 이민재 (더누림 회장)



토요일 집회가 끝난 후 더누림 청년들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더누림, 혁신의 닳을 올리다”(요2:1~11) 라는 주제로 정성훈 목사님과 함께 예수께서 첫 표적을 나타내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수련회가 진행되었다. ‘더누림’은 35살 이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로 구성된 공동체다.

동계수련회 첫날은 영은교회 금요찬양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 미리 만난 청년들과 저녁 나눔을 하며 근황을 서로 이야기하며 기쁘게 시작했다. 이후 예배로 나아갔다. 찬양과 기도회 후 공동체가 모여 기도로 마무리했다. 둘째 날은 2층 유아부실에서 더누림 지체들끼리 집회를 진행했다. 목사님의 기타

반주와 가양 자매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한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고 기도했다. 목사님의 말씀 선포 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를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다가 마지막엔 함께 손을 잡고 중보기도로 나아갔다. 주님의 예비하심과 역사하심을 그 자리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셋째 날은 4부 예배 후 영진 형제가 진행하는 레크레이션을 통해

청년들의 색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었고, 마무리는 역시 맛있는 음식으로 식사교제를 하며, 돈독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4년 동안 내가 느낀 더누림은 특수성을 띤 공동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수련회의 진행 방식도 많은 변화를 거쳐왔고 다양성을 추구했던 것 같다. 그렇지만 매년 어떠한 형태이던 수련회 후엔 우리를 기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이번 동계수련회 또한 주님의 계획하심 아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느낌이었다. 한해 한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는 ‘더누림 공동체’가 되길 기대해 본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는 아이들입니다

— 영아부 겨울성경학교 소감문 —



글 | 채송화 (임은유 임시은 엄마)

작년 첫째 온유 때에 이어 올해에는 둘째 시온이와 함께 참석한 영아부 겨울성경학교는 공지가 올라오고 예배시간에 광고를 해주실 때마다 계속 기대하는 마음과 설레이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시온이가 요즘 부쩍 성장해 영아부 예배에서 선생님의 율동과 찬양을 따라하며 영아부 예배를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에 더더욱 기대가 됐습니다.

역시나 올해의 겨울 성경학교는 기대 이상이었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들도 함께 정말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꾸며놓으신 영아부실 모습에 시온이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찬양과 율동시간에 온 몸을 들썩이며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맹연기가 펼쳐진 예배시간의 뮤지컬은 시온이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 넋을 놓고 보았답니다.

‘반짝아이 씽씽’이라는 주제로 꿀꿀이로 시작해 많은 동물들이 함께 나오며 반짝이는 예쁜 마음을 알려주시어 우리 아이들 마음에도 반짝 반짝 예쁜 마음을 심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아부 예배를 통해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에게도 늘 귀하고 중요한 말씀들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 성경학교 뿐만 아니라 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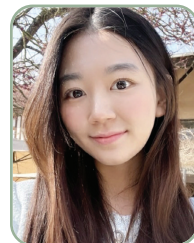
드리는 영아부 예배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말씀을 주셔서 한 주를 하나님 말씀에 힘 입어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영아부 겨울 성경학교 주제 이야기를 계속하며 반짝이는 마음들을 아이들의 마음에 계속 담아주려 합니다.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다시 보고 묵상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역시나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답니다. 첫째 아이는 꿀꿀이처럼 친구들을 도와주고 반짝반짝 하트 마음을 가질거라고 이야기하며 좋아했고, 둘째 아이는 계속 손으로 반짝 반짝 거리며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아부 예배에서 듣고 배우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겨울 성경학교, 그리고 매 주 예배를 위해 온 마음 다하여 준비 해 주시는 선생님들, 전도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 유아부 겨울 성경학교 소감문 —



글 | 주서연 교사

2024년 유아부 겨울 성경학교는 “나는 믿음의 사람 (Living in faith!)”을 주제로 2월 3~4일 이틀간 진행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겨울 성경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유아부를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빠르게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며 마음을 온전히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유아부에 저를 부르신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 성경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참석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순수한 마음과 눈빛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각 반별 활동을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이 귀하게 느껴지며 저를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중점으로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아이들이 밝은 미소로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작은 손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예쁘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자녀로 바르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체육대회는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대그룹 활동 중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불을 끄고 야광별과 레이저로 환상의 별들을 감상하며 우리 아이들도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성장하길 함께 기도합니다.

20일 동안 매일 기도로 함께 한 우리 유아부 친구들과 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유아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 됐나요?”

—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 소감문 —



글 | 박형훈 교사

2월 3일, 4일 양일간 열린 이번 겨울성경학교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올바른 복음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됐나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사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찬양, 율동과 연극, 공과, 다채로운 활동들까지 꽉 차있는 일정 속에서 겨울성경학교가 시작되었고,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맞이하였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기다릴 동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톡망톡 망한 눈망울로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감동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친구들이기에 가끔씩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목사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질문에 답하는걸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각 코너별 학습들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임하는지 오히려 함께하는 교사들이 지칠 정도였습니다.

혹여 힘들진 않을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집중해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말씀듣고 학습하는 우리아이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었습니

다. 이렇게 잘 심어진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해봅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은혜가 충만했던 귀한 시간!

아이들의 모습 속에 더 은혜의 시간이었고, 무사히 겨울성경학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정가운데 주관해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죄를 버리고 사랑과 성실함으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세요!

—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 소감문 —



글 | 김라엘 어린이

유년부 겨울성경학교를 2월 23일 금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3일 동안 했다. 성경학교를 시작하기 전부터 설레는 마음이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가는 건 조금 힘들었다. 교회에 가는 차에서 시간표를 보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다.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친구들 이름 맞추기를 했다. 몰랐던 친구들의 이름을 많이 알게 되었다. 점심시간에는 선생님들이 준비해주신 밥을 먹었다. 맛있는 음식에서 선생님들의 정성이 느껴졌다. 밥을 먹으려면 말씀 암송을 해야 했다. 말씀 암송 연습을 많이 해서 앞으로 더 잘 외울 수 있을 것 같다. 점심을 먹고 나서 안산 테마파크에 갔다. 거기에서 미끄럼틀과 집라인, 자동차, 트램펄린도 타고 여러 가지 체험도 했다.

아주 높은 천국의 계단도 올라갔는데 조금 무서웠다. 그네 점프를 할 때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다. 맛있는 간식도 먹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두 번째 날에는 공과 시간이 많았다. 교회에 갈 때 공과가 많아서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재미있었다. 공과를 하니 하나님께 한 발짝 다가간 느낌이었다. 센터학습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실을 돌아다니며 게임을 했다. 종이컵 쌓기와 표현 게임, 단어 맞추기 도미노 게임을 했는데 우리 조원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준 조원들이 자랑스러웠다.

마지막에 시상을 했는데 아쉽게도 5조가 1등을 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우리 조가 1등을 하지 못해서 아쉬웠다. 겨울성경학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너무 좋아! 하나님이 최고!

—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 소감문 —



글 | 최우승 어린이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올라 온지도 엇그제 같은데, 벌써 2학년이 되어 유년부에서 마지막 겨울성경학교를 가게 되었다. 주일마다 김찬영 전도사님과 유년부 선생님들과 즐거운 예배를 드리니 어디를 간다 해도 두려움이 아닌, 설렘과 기대감이 큰 것 같다.

우리 교회 멋진 버스를 타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대형 키즈카페에서 신기한 마술쇼도 관람하고 자동차도 직접 운전하며 친구들과 너무나 재미있게 놀았다.

성경학교 둘째날은 하나님의 말씀 암송 시간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6:5)

내 마음속 1등 우선순위 카드에 하나님을 적은 것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 위한 나의 실천 사항에 ‘십자가를 사랑해요.’라고 적은 것과 같이 나와 내 친구들 모두가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사랑했으면 좋겠다.

언제나 맛있는 우리 교회밥과 가방에 넘치도록 넣어 주시는 간식을 먹으며 오늘도 나는 큰소리로 외친다. 우리 교회 너무 좋아! 하나님 최고! 전도사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는 혁신하는 선교사입니다

—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소감문 —

김승준 선생님

2월 9일부터 18일까지였던 이번 겨울성경학교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성경학습을 통해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며 선교사의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접 밖에서 전도지를 읽으며 초등학교의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연습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겨울성경학교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학부모와 같이 저녁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일이다 보니 조금 염려가 되었지만 정작 집회시간이 되니 걱정과는 달랐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즐겁고 기쁘게 찬양하며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름에는 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4-3반 정원필 어린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도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라고 말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앞으로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사의 역할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4-2반 조에서 어린이

이번 성경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다. 그리고 계속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께 죄송하고 또 존경스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 성경학교를 통해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더 믿음을 키워야겠다는 다짐과 전도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겠습니다

— 소년부 겨울 성경학교 소감문 —



글 | 이지안 어린이

소년부는 2024년 2월 16일 금요일부터 2월 18일 주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겨울성경학교를 진행하였다.

먼저, 무엇보다도 6학년이 되고 처음하는 성경학교였기에 5학년 친구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다. 이번 소년부 성경학교는 '노이즈 캔슬링(Noise Canceling)'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는데 이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번째로 레크레이션, 코너 학습 시간에는 선생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재미있는 게임을 진행했다. 레크레이션 시간에는 체육관에서 OX퀴즈, 풍선 넘기기, 손가락으로 탁구공 나르기 등의 활동을 했고, 코너학습 시간에는 7층 세미나실, 소년부실, 유치부실, 유아부실에서 다양한 게임을 진행하며 친구들과 협동했다.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성경공부와 저녁 집회가 있었다. 성경공부 시간에는 각 조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조별로 흠어져 성경말씀을 듣고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저녁 집회 시간에는 신나게 찬양을 드리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도시간에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소년부 공동체를 위해 열심히 기도를 했다.

특히 토요일에는 웃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웃을 던질 때마다 짜릿한 기분을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즐기니 정말 신나고 재미있었다.

마지막 날 주일 오전에는 조 대항 성경퀴즈대회를 진행함으로써 말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었다.

이처럼 소년부는 하나님께 신나게 찬양드리고, 열심히 기도드리며 겨울성경학교의 시간들을 보냈다. 이번 성경학교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이 다음 성경학교에 꼭 참여해서 다함께 이 즐거움을 느껴 보았으면 좋겠다. 또 내년에 소년부에 올라오는 초등부 친구들에게 소년부의 성경학교를 추천하고 싶다. 끝으로 이번 성경학교를 즐겁고 재미있게 열심히 준비해주신 소년부의 모든 선생님들과 전도사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주님!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해주세요

- 소년부 겨울 성경학교 소감문 -



글 | 강아람 어린이

이번 성경학교는 저에게 큰 경험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친구를 전도해 같이 자보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오는 친구라 예배 시간에 적응을 못할지 걱정이 됐는데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덕분에 적응도 잘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친구뿐만 아니라 친구랑 단합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 맛있는 밥, 예능에서 나온 게임을 할 수 있는 코너 학습,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녁 집회까지 모든 활동이 저에게 있어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큰 경험들 중에서 저는 저녁 집회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저희 소년부와 함께하심이 소년부실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모두의 왕이신 주께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것은 정말이지 큰 영광과 행복이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저희 소년부 모두에게 들어와 주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항상 사탄은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모욕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두려울 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소년부 성경학교 동안 모두 순종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수련회였습니다 - 중등부 동계 수련회 소감문 -



글 | 박정우 학생

소년부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되어, 중등부 겨울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는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교회학교 겨울 수련회는 항상 영은교회 안에서 보냈었는데, 처음으로 밖에 나가는 겨울수련회라서 기대가 되었습니다.

‘수련회 첫날’에는 오리엔테이션 및 레크레이션을 하였고, 저녁 집회 때는 전도사님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말씀은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돌아섰다 할지라도 기다리시고, 맞아주신다는 것이었고, 우리가 잘못 된 길을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가시덤불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수련회 둘째날’에는 ‘청년부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시간과 장기자랑, 조별 대결’이 있었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마지막 저녁 집회 시간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호소’라는 주제로 설교하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내게 호소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께서 수련회 이후에도 불씨가 꺼지지 않으려면 ‘제물’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제물은 바로 ‘나의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동안 예배 때 이후의 모습이 불씨가 꺼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수련회 이후에도 ‘나의 삶을 주께 드리겠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의 교만, 불순종 등 여러 가지 죄를 떠올리게 해주셨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내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삶으로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마지막 날까지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기쁨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나를 한순간에 바꿔주신 하나님

— 중등부 동계 수련회 소감문 —



글 | 최지호 학생

우선 저를 이렇게까지나 변화시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련회에 갔다 오기 전까지의 삶은 주님 보시기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척’, 예의가 바르고 겸손하며 의가 많은 ‘척’, 그러나 뒤에서는 거짓과 욕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런 저에게는 수련회 가는 동기가 그저 놀기 위함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기대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수련회장 가기 전부터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께서는 저를 한순간에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호소] 라는 제목의 설교 중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요엘 2장 12절~1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약하자면,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제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제 마음속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러한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마음속 울림을 듣고 저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이 죄인을 기다리고 기다리신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전의 삶의 모습이 너무 타락했었음을 알아서... 저는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수련회가 끝나 세상에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다시 죄에 물들어서 악을 행할 타이밍에 저는 더 이상 악한 세력의 공격에 두려움 없는 강한 영혼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지금과 같이 주님의 자녀 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살아가면서 제 마음속 주님의 제단의 불타오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 내일의 삶을 드립니다. 



고등부 「고기파티」 동계수련회

— 고등부 동계 수련회 소감문 —



글 | 이승혜 교사



고등부 동계수련회가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고기파티」라는 주제로 가평 오륜 비전빌리지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되었다. 수련회에는 김영락 전도사와 고등부 교사 및 청년 스태프를 포함해 총 90여 명이 참여했다. 수련회 주제인 「고기파티」는 닭, 소, 양, 돼지가 나오는 성경 구절들로 수련회 집회 말씀이 선포되었기에 붙여진 제목이다. 아이들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다윗처럼 춤을 추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귀한 현상이었다.

수련회 첫째 날, 둘째 날이 지나며 점점 뜨거워진 집회 가운데 교사로 참석한 나 또한 아이들의 모습을 통

해, 우리 고등부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공급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축복하며 서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섬길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했던 고등부 동계 수련회였다. 「고기파티」 수련회에서 누렸던 은혜와 사랑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받은 것을 주변에까지 널리 전할 수 있는 고등부가 되길 소망한다. **동행**

한 마리의 잃은 양은 바로 나였다

— 고등부 동계 수련회 소감문 —



글 | 한윤호 학생

흥미로운 주제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았던 고등부 겨울수련회 <고기파티>!

많은 분들의 기도와 전도사님, 선생님들의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새로운 학년을 앞둔 분주한 일상 가운데 많은 친구들이 참석하고 수련회를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월 4일~6일까지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특별하게 성경 속 동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일깨웠던 닭의 이야기를 통해 베드로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관찰의 시선”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언약궤를 이끌었던 소를 보며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회개할 수 있었고, 돼지 2,000마리보다 소중한 한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저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비유를 들을 때 속으로 “나는 99마리 양들 중 하나일 거야”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고 저 스스로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련회 설교 말씀을 들으며 제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게 되었고, 잃은 양 한 마리인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집회 시간에 고등부가 모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목소리로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학년별로 축복하며 기도할 때 고등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셀레브레이션 시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을 드렸고 기쁨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특별히 고등부 학생들이 찬양을 준비해 직접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참 뜻깊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겨울수련회<고기파티>에 참여하며 99>1이 아니라 99<1을 정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돌리고 삶의 모습으로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영은 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전도가 되었습니다

- 훈련생 간증 2단계 한마음교회 박미순 권사 -

저는 전폭훈련 1단계 교육 때에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영혼구원이라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외우는 것 현장실습 등 생소한 프로그램이 부담감으로 작용했으나 훈련이 계속되면서 복음제시 방법과 개요를 익히고 훈련과정을 통해 성경말씀과 지식을 얻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을 암기하면서 전도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의 영적 성장은 삶의 우선순위를 전도하는 일에 두게 되었고 일주일에 한번씩 노방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1단계 때의 훈련부담은 있었으나 부족한 점들을 채우고 좀 더 자신있게 전도하기 위해서 2단계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훈련생들의 경험과 간증을 통하여 또한 관계전도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보면서 전도의 중요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다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이런저런 일들로 예배 생활을 포기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계기가 되었고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 교회 출석하는 모습

을 볼 때 전도의 보람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성령충만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0조 훈련자 권사님! 독감에 걸려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전도현장에서 상황에 맞는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2단계 강의를 은혜롭게 열강해주신 강사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전폭교육 훈련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훈련기간 동안 개근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됨...

— 훈련자 간증 장진아 권사 —



글 | 장진아 권사

전도폭발 훈련자 12명은 지난 1, 2월 두 달간 매주 목요일 강화도 지역으로 전도폭발 훈련지원을 다녀왔습니다. 5개 교회에서 모인 훈련생 32명을 대상으로 8주간에 걸쳐 1, 2 단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2019년도 강화도 북성교회와 교산교회를 대상으로 1단계 훈련을 진행하던 중 종강을 몇 주 앞두고 코로나로 인해 훈련이 중단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23년도에 다시 훈련을 재개하여 북성교회와 한마음교회의 8주간 훈련을 마칠 수 있었고 풍성한 전도의 열매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소식을 접한 강화 인근지역 목사님들의 요청으로 올해 다시 훈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예배당을 가득 채운 훈련자와 훈련생 그리고 다섯 교회의 목사님들이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의 시간은 연합의 의미를 알게 해 주신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훈련의 장소였던 지산교회에는 놀라운 전도의 열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15년간 교회에 발걸음을 끊었던 한 마을 주민은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다시 받아들였고 돌아오는 주일 교회에 출석하였으며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등 모든 예배 때마다 맨 앞자리를 지키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계속해서 지낸던 제사를 끊고 추도에 배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분의 마을 주민은 교회 앞 도로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통행을 방

해하며 교회에 어려움을 주던 분이었는데, 이번 훈련 기간에 지산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기 전 냉랭한 반응의 대상자가 복음을 듣고 결심하며 교회출석을 약속하고 또 종강 예배에도 오신다는 공개 보고를 들을 때 모든 대원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찼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도훈련을 처음 받게 된 훈련생들이 복음으로 무장되고 전도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고백을 들을 때 깊은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또한 훈련자라는 역할을 가지고 참여한 저희들은 믿음의 선배님들이신 훈련생들의 간증과 삶을 들으며 큰 도전과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훈련을 통해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의 어려움을 체감할 수 있었고, 한 성도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울타리를 넘은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될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여한 북성교회, 한마음교회, 지산교회, 석포교회, 내서교회의 훈련생들이 각 교회에서 복음의 일꾼들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기도부탁드립니다.

훈련을 허락해 주신 당회와 기도로 동역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경배 안수집사를 찾아가다



글 | 이성창 안수집사

지난 1월 11일 오전 9시 30분 안수집사회 소속 이성창, 이병덕, 오신타 집사 등 3명이 쌀 20포를 봉고 차에 싣고 이경배 집사가 요양하고 있는 충북 충주시에 위치해 있는 복지시설 “선한마을”을 향해 출발하였다.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인데 차량안에서 3명이 재미있는 대화도 나누다 보니 2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갔다. 충주시 변두리 야산의 양지바른 언덕 길가에 위치한 선한마을에 도착하니 보고싶었던 이경배 집사가 입구에서 기쁘게 반기고 있는 모습이 무척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내가 35년전 영등포지역으로 이사오면서 우리 영은교회에 처음 출석했을 때 잘 정착할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고 동료로서 너무나도 가깝게 지냈던 그 시절을 지금도 내 기억속에 생생히 떠올라서 지금의 이경배 집사를 보면 참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 뿐이다.

선한마을에서 준비한 점심식사를 마다하고 좀 더 서로 대화를 하고 싶

은 마음에 주변 식당으로 이동하여 식사하면서 재미있었던 옛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솔한 현재의 심경도 들어보는 과정에서 이경배 집사님의 순수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 모습을 다시 떠오르게 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년도에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고 서울로 향했다. 



인도에서 온 편지

인도하心

- 인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

글 | 신국진 · 안윤정 선교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
보자” (히브리서 12:2)

모든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며
2024년 첫 기도편지를 나눕니다.

2024년에 많은 분야에서 정한 트렌드가 있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와 구축’입니다. 리빌딩이 필요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세대 속에 판도가 바뀐 것을 인정하며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등등의 말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다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지 않을까 합니다.

인도 교회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도입되고 있고, 엄청난 자본과 사역들이 펼쳐지고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얻게되는 해답은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사역과 삶의 기회가 있고 달콤한 손길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얻게되는 해답은 ‘예수’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복잡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얻게 되는 해답은 오직 ‘예수’라는 것을 오늘도 이 시간에도 깨닫게 됩니다.

2024년에 많은 트렌드 속에 결국 우리가 쫓아야 할 트렌드는 ‘**모든 트렌드를 주도하시는 예수**’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한해를 새롭게 계획하고 살아내

길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 인도와 디모데 펠로십이 있는 콜가타, 그리고 온 열방을 위해 중보해 주시는 동역자들 사랑합니다.

1. 디모데 펠로십 사역

1) 창립 14주년 이야기

지난 1월 14일은 디모데 펠로십 14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14주년 기념 예배 및 행사



아짚과 수로짓 목사가 라니아 지역에 대나무집 한 천을 빌려 교회를 개척했던 지난 2010년은 몹시 비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우기 때는 비가 무릎까지 차 오르는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모인 성도들은 서서 예배하며 성경을 배우며 첫 해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은 성도의 집 옥탑방을 빌려 3~40명이 앉을 공간도 있고, 또 디모데 펠로십의 이름으로 땅도 구입하고 곧 교회도 건축하게 되니 우리에게 전해지는 감사가 얼마나 큰 지 모릅니다.

지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앞으로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2) 크리스마스 파티 이야기

지난 12월 10일부터 30일까지 디모데 펠로십 모든 지역 펠로십과 가정교회를 방문하며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를 하였습니다.



방문한 지역 및 가정

12/10 영어 예배 (모아 목사 가정)
12/12 고라가차 펠로십
12/13 로힛 가정, 12/14 알폰 가정
12/15 구디 가정, 12/16 수짚 가정
12/17 덤덤 펠로십, 12/18 수로짓 목사 가정
12/19 조하띠 펠로십, 12/20 부리아빨라 펠로십
12/21 다이아몬드 하버 펠로십
12/22 몰롱가 펠로십, 12/23 크리스마스 캐럴
12/24 어린이 프로그램 (라니아)
12/25 크리스마스 예배 (라니아)
12/26 아짚 목사 가정, 12/28 아바다 펠로십 교회
12/29 본호ल्ली 펠로십 (수조이 목사)
12/30 바라이뿌르 펠로십



크리스마스는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발표회를 준비하고 부모를 초대하여 찬양으로, 드라마로, 또 설교로 복음을 나누는데, 조금씩 마음을 여는 가정들을 바라보며 너무 기쁩니다. 이 모든 일이 동역자들의 기도 가운데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해 후원해 주신 동역자들에게 감

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11년간 살아가며 사역비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셨답니다. 동역자들의 기도와 후원이 현지인들 가정에 복음과 함께 전해졌습니다. 지난 12월을 돌아보면 모든 시간이 은혜요 간증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 장신대 선교현장연구 및 실습 팀 인도 방문

지난 1월 16일에 장신대 선교 현장 연구 및 실습을 위해 대학 · 신대원 전도사님 19명이 인도를 방문하였습니다.

콜카타로 입국하여 바라나시, 아그라, 암니차르, 자이뿌르, 델리를 거쳐가는 13일간의 일정으로 콜카타와 바라나시를 방문하는 6일간의 시간을 인솔하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바뀌며 요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는다고만 생각했는데 19명의 뜨거운 가슴을 가진 전도사님들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 이외 사역 및 선교 이야기

1)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며...

2022년 8월 안식년을 마치고 인도로 돌아오는 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많이 연로하시고 오랜 지병이 있으셨던지라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는데 지난해 12월 30일 응급실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1월 9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50세 이후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28년동안의 새 삶을 사시며 교인(아버지의 진짜 성함)에서 집사로 또 장로로 세워져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보내기란 인간적으로는 슬프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위로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 자다플 대학교 한국어 과정

2023~24년 한국어반이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모두 16명의 학생이 수료하게 되었는데 지난 1년이 복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고, 강단에서 나누는 것 이상의 교훈과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기 위해 몸부림 쳤던 1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모두 감사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막달라 마리아가 좋다

글 | 이숙경 기자

오래 전, 청년부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이다. 목장 전체가 모여 좋아하는 성경 인물을 써내는 놀이를 한 적이 있다. 대부분 바울, 다윗, 세례요한, 베드로 등등, 누가 들어도 납득할 만한 인물을 적어 냈다. 그 중 사회자는 드문 인물을 쓴 사람을 앞으로 불러, 왜 그 인물을 좋아하는지 물었다. 그렇게 앞으로 불러나간 서너 명의 사람 중 한 명이 나왔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막달라 마리아’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사회자는 당황했고, 앞에 앉은 몇 명은 키득거렸다. 사회자는 ‘아……, 예에…….’ 하고 웅얼거리더니, 왜 좋아하는지 그 이유는 묻지도 않고 내 옆 사람에게 마이크를 넘겨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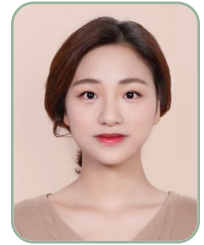
사회자가 왜 당황했는지, 앞에 앉았던 이들 중 몇 명이 왜 웃었는지, 이제는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뮤지컬이나 창작품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곧잘 간음을 이유로 돌에 맞아 죽을뻔했다가 예수님이 구해주신 여성으로 묘사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해당 이야기가 나오는 요한복음을 보면 간음했던 여자의 이름은 정확히 나오지 않는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은 성경에서는 물론 외경에서도 여러 번, 여러 장면에서 등장하는데, 언급된 이름 모두가 한 인물을 가리킨다는 주장도 있고, 각기 다른 인물이라는 주장도 있다. 어쨌든 그 여러 번 언급된 ‘막달라 마리아’ 중 내가 좋아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였는가 하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했던 ‘막달라 마리아’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도 저 살자고 뿔뿔이 흩어졌다.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킨 것은 여자들이었다. 그 중 막달라 마리아는 사복음서에서 모두 언급된다. 그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거기 있었고, 가장 먼저 빈 무덤을 발견했으며,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인물이기도 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마가복음 16장 9~10절)

성경 시대가 남성중심의 사회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시대 속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여성의 몸으로, 자신의 소유를 바쳐가며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다. (누가복음 8장 3절) 제자들이 도망칠 때에도 끝까지 그야말로 죽음을 넘어 부활의 순간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시던 때뿐만 아니라, 가장 힘든 고초를 겪고 계셨던 순간에도 말이다. 또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달려가 알린 첫 번째 사람이었고 말이다.

나는 그녀에게서 용감함을, 굳건한 믿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영접한 영광을, 부활의 소식을 널리 전하고자 하는 사명을 본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좋아한다. 지금도 여전히 말이다. 



글 | 장은 (팀.초록 팀장)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팀.초록]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지 4년차가 되어갑니다. 기독교인에게 환경운동이 그리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여전하기에, “우리가 뜬구름 잡는 걸까?” 하는 생각에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함께해주는 팀원들과 응원해주는 성도님들 덕분에 다시 힘이 납니다. 팀.초록은 올해부터는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팀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나누며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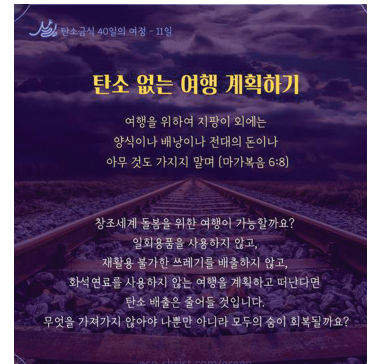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에서는 양질의 기독교환경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공유해주는데요. 살림에서는 사순절에 금식하며 경건하게 생활하는 것처럼, 탄소 배출을 경계하며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탄소금식”을 제안합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서도 사순절 탄소금식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는 지구의 적정온도를 줄이고 파괴되어 가는 우리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탄소를 줄여야 합니다. 이미 넘치는 탄소를 줄이는 것은 당장 힘들기에, 우리부터라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노력이라도 해보자는 것이 ‘탄소중립’의 뜻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탄소금식” 해보시면 어떨까요?

2024년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녹색계명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녹색 십계명의 제1계명을 소개합니다. 첫 계명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행에서 짐을 줄이고 가볍게 하려

고 일회용품을 사용하는데, 간편하게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은 그대로 모두 쓰레기가 됩니다. 쓰레기는 매립지에 묻거나 소각장에

서 태웁니다. 쓰레기를 매립지에 묻게 되면 그 안에서 부패하면서 메탄 등의 가스가 발생합니다. 땅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기도 하죠. 소각하는 경우 대기로 유해한 물질들이 흘러가는데, 직접 쓰레기를 태우는 사람뿐 아니라 소각장 인근 주민을 넘어 이 지구상 모든 이에게 해롭습니다. 자원을 아끼는 차원에서도 일회용품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 마실 때 쓰는 종이컵, 커피 포장할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 역시 한 번 쓰고 버리기엔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편리하다는 이유로 아까운 자원들을 계속 낭비하고 있습니다. 자원은 한정적이고, 지구는 하나뿐입니다. 이 지구가 망한다면 우리에게 다른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있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세상도 이 지구를 의미합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원을 귀하게 여기며, 아끼고 돌보는 태도가 제1계명인 이유입니다. 





▶ 교회를 섬기는 분들

원로목사 허남기
 담임목사 이승구
 부목사 최광주 이준희 이예리야 박대원 정성훈
 한진구 신요한 김민식 이찬양
 교육목사 전수현
 전도사 장미애
 교육전도사 나진희 박선민 황금성 조화평 정혜빈 김영락
 김찬영 김희창
 선교사 구용회 백현이
 협동목사 종현덕 소병찬 김규리
 선교협력목사 빅터 콕쿠 아데비

▶ 영은교회 예배시간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본당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4부 오후 1:30	
오후예배	오후 3:30	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7:3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본당
금요일심야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본당
영아부	주일 오전 11:00	1층 영아부실
유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유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소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꿈자람부	주일 오후 1:30	비전센터 2층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고등부	주일 오전 9: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제자학교	주일 오전 10: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청년부	주일 오후 1:3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 영은교회 찾아오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은교회

www.youngeun.or.kr

월간동행 e-mail : yemagazine@naver.com